

아파트 생활기사의 주거담론분석

- 1960~80년대 일간지와 여성지 기사를 중심으로 -

An Analytical Research of Mass Media's Articles about Korean Apartments' Living

- Focused on the Articles of Newspapers and Women's Magazines Between 1960~80's -

Author 김혜숙 Kim, Hye-Suk / 정희원, 숭실대학교 대학원 실내디자인학과 박사과정
서정연 Suh, Jeong-Yeon / 정희원,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실내건축전공 부교수*

Abstract As of 2010, apartment occupies more than half of all houses in Korea. It took just half a century since 1960 when apartment was introduced to ordinary people for the first time. The apartment has spread over the nation very swiftly since then. This phenomena needs more inclusive explanations than the investigations into the government's policies or economical situations. Without satisfaction and consensus of people, the universal spread of apartment might be fairly unrealizable. In this vein, the research and analysis has been performed in order to grasp the picture of everyday life's discourse based on the related articles from five major newspapers and five women's magazines during 1960~1989. From the articles' discourses we tried to understand how modern apartment has been accepted and evaluated through people's living life in it. First, the discourse of living life was generated mostly by housewives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apartment and traditional house. Second, the most influential aspect of apartment's popularization was the convenience of efficient housekeeping system by modern equipment and home appliance installed in apartment. This efficiency could allow housewives to perform various urban activities such as work, shopping, and simple going out. Third, the satisfaction from efficiency and privacy brought about a sense of alienation at the same time. As a result, the rapid proliferation of apartment in Korea could be attained not only by the institutional driving forces but through the fulfillments of Korean people's housing needs from modern everyday life.

Keywords 아파트, 신문, 여성지, 주거, 담론
Apartment, Newspaper, Magazine, Living, Discours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아파트는 새로운 주거형식의 도입을 통한 생활혁명과 경제적 효율을 높여 근대화로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1958년 최초 건설 후 50여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 형식으로 정착되어, 통계청 주택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전국주택의 58.4%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아파트의 급격한 확산 원인을 해방이후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토지가 한정된 도시로 인구가 대량 유입되면서 발생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과 정부 주도적인 아파트의 대량공급 및 소유를 돕는 제도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파

트는 도시적 과밀과는 거리가 먼 농어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정책적, 제도적 관점과는 다른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발레리 줄레조(2007)와 천현숙(2002)은 주거유형에서 아파트의 비율이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급속도로 증가한 국가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¹⁾ 저서인 『아파트 공화국』에서 발레리 줄레조의 언급과 같이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도입된 지 불과 몇 십 년 만에 한국 주거공간의 대부분이 아파트로 대체된 것이 정책과 밀도에 의해

1) 발레리 줄레조, 아파트 공화국, 초판, 후마니스트, 서울, 2007, p.18; 천현숙, 아파트주거문화의 특성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p.1; 참고) 장성수(1994)의 논문 p.209에 의하면 1941~60년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는 총461호가 건설되었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유형별 주택에서 아파트의 비율은 1970년 33,372호 0.77%에서 1980년 373,710호 7.03%, 1990년 1,628,117호 22.74%로 늘어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jysuh@ssu.ac.kr

서만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즉, 주거의 주체들이 아파트생활에서 장점을 발견해내는 과정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일상적 만족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아파트의 보급과 확산이 이처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일반화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아파트주거생활에 대한 개인의 이해와 판단이 우리나라 아파트 확산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아파트가 도입되고 일반화되어가는 1960~80년대 신문과 여성지의 아파트생활 기사 분석을 통해 주거담론의 변천과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일간지 5개와 여성지 5개에 게재된 1960~1989년 사이의 아파트생활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기사 총 975건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주요 독자층을 남성으로 하는 월간지는 아파트의 주거생활과 관련한 기사가 매우 적어 연구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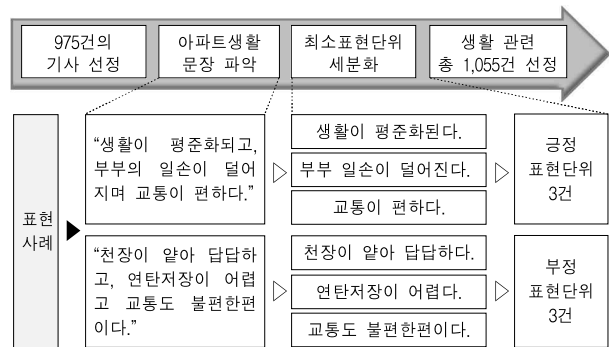
<표 1> 매체별-년대별 기사 건수

매체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계	
신문	조선일보	4	43	22	69
	중앙일보	22	134	43	199
	동아일보	8	11	256	275
	매일경제	4	18	56	78
	경향신문	4	34	158	196
	소계	42	240	535	817
여성지	여원	2	10	25	37
	여성상 (68년 폐간)	6	-	-	6
	주부생활	1	14	19	34
	여성동아	1	16	33	50
	여성중앙 (1970년 창간)	-	25	6	31
	소계	10	65	83	158
계	52(5%)	305(31%)	618(64%)	975(100%)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30년간의 5개 일간지와 5개 여성지에서 아파트생활내용을 담고 있는 총 975건의 기사를 연구대상으로 수집하였다.²⁾ 이들 기사들은 한 기사 안에서 아파트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보다 객관적이며 세밀한 분석을 위해, 수집된 모든 기사를 아파트 생활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는 총 1,055개의 표현단위로 세분하였다. 이들 표현단위는 단일한 문장일 경우도 있으며, 한 문장 내에 여러 개의 표현단위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각각의 표현을 하나의 단위로 보았다.(그림1 참조)

2) 기사검색은 각 일간지의 웹사이트, 네이버 기사검색기능, 국립중앙도서관 검색엔진을 이용하였으며, '아파트 생활', '어파트 생활', '아파트 생활'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1차 검색하였으며, 기사제목과 전문을 확인하여 아파트생활내용을 직접 담고 있는 975건의 기사를 최종 수집하였다.

1,055개의 표현단위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어떠하다"는 서술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주어진 '무엇'은 거주자들이 주목하는 아파트생활의 어떤 요소이며, '어떠하다'는 그 요소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빈번하게 등장하는 세부항목을 유목화(categorization)하여 주거담론적으로 중요한 5개의 주제로 묶었다.³⁾ 또한, '어떠하다'로 표현되는 요소에 대한 판단은 단순화하여 긍정표현과 부정표현으로 구분함으로써 년대별로 변화하는 주거담론의 주제와 그에 대한 판단을 비교, 고찰하였다.



<그림 1> 아파트생활기사 표현단위의 분류과정

2. 아파트 생활기사와 표현단위 고찰

2.1. 아파트 생활기사의 특징

1960년대부터 신문과 여성지는 아파트의 정책, 제도, 분양 안내 및 광고를 비롯하여 아파트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회적·일상적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이들은 시사·논설·칼럼·수기 등의 다양한 기사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소개함으로써 아파트주거생활을 대중적으로 인식시키고, 때로는 보다 개선된 주거환경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파트생활기사는 정책홍보나 기업광고와는 달리 아파트생활에 관한 독자들의 일상적 담론이 모이고 확산하는 여론의 장으로 작동하였으며 이를 추적, 분석함으로써 아파트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담론적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1) 신문의 아파트생활기사

3) 5개의 주제는 가사, 정서, 위생, 안전, 육아·교육으로 주거관련 도서인 대한건축학회(2010)의 「주거론」, 광경수 외9인(2011)의 「신개념 주거학」, 홍원화(2013)의 「인간과 주거문화」에 언급된 주거요구기능 항목들을 참조하였다. 각 주제의 세부항목은 위에 언급한 도서와 조희금 외 1인(2009)의 연구를 통해 가사의 세부항목, 김남길 외 1인(1996)의 연구를 통해 주거 내 거주인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지혜(2002)의 연구를 통해 주거의 위생 공간범위와 기기종류, 대한토지주택공사(1999)의 주거 일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 매뉴얼을 통해 주거의 일상재해 종류 등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기사'는 신문과 잡지에 게재된 기사본문을, '표현단위'는 '무엇이 어떠하다'는 형식의 판단을 담고 있는 기사본문의 문장을, '세부항목'은 표현단위내의 주어/를 가리킨다.

아파트생활의 신문기사 수는 아파트 도입기인 1960년대는 적었으며, 1970년대는 아파트의 대량공급과 더불어 그 이전 약 10년에 걸쳐 축적된 아파트담론의 형성으로 기사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80년대 전반까지 지속되다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저조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신문기사의 주된 내용은 시대에 따라 발생하는 아파트의 주요 화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를 시대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1960년대 초반에는 입주자들의 경험담을 직·간접으로 인용하고 중반부터는 기사나 아파트 관계자들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조사와 관찰, 인터뷰 분석을 종합하여 아파트의 내부구조나 시설과 함께 장·단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⁴⁾ 70년대에는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였고, 중반부터는 아파트의 획일적 속성으로 발생하는 정서적 문제나 이웃단결과 같은 폐해가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생활 습관과 아파트 환경간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공동생활로 인한 이웃과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아파트 생활에서의 간소화 방법이나 공동생활을 위한 에티켓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신문은 아파트생활에 대해 ‘익숙해지고 있다’, ‘이사 갈 생각이 없다’, ‘아파트 붐’과 같은 기사내용을 통해 아파트 주거형식이 점차 정착되어 가는 세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70년대 후반부터는 정서에 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나타냈다.⁵⁾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문제점에 대한 기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와 연결하여 아파트생활이 전달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2) 여성지의 아파트생활기사

여성지의 아파트생활기사는 신문과 비교해서 시각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였다. 여성지의 아파트생활 기사 대부분은 여러 지면이 할애되며 글과 함께 다수의 사진이 첨부되었다. 신문에 비해 여성독자들의 수기기사가 더 많이 등장했으며 설문조사의 경우도 설문 대상자들의 신상정보와 글을 그대로 기사에 실어 독자가 읽고 아파트생활에 대해서 직접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내용은 년대별 큰 변화가 없었으며, 독자층인 여성들을 고려하여 여성과 밀접한 내용으로 기획·편집되어 주로 거주 아파트의 구조나 시설에 따른 기사 노동의 장단점, 자녀교육 환경으로써의 적합성, 아파트 거주 주부들과의 친교와 취미생활, 식모문제, 부

부 애정생활, 협소한 아파트 공간 활용 및 인테리어 방법 등이 주제로 다루어졌다.⁶⁾ 또한, 아파트의 제반문제에 여성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기사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아파트의 여성입주자들이 해결하며 권리를 찾아가는 기사⁷⁾들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계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2.2. 표현단위의 수량적 고찰

아파트생활의 기사에 나타난 표현단위 1,055개를 주제별로 분류한 후, 이를 시대별로 재분류한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주제별-년대별 표현단위의 구성

주제 \ 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가사	36.5%	28.4%	21.6%
정서	11.8%	22.7%	31.2%
위생	30.3%	19.8%	14.0%
안전	14.6%	19.3%	22.9%
육아·교육	6.8%	9.8%	10.3%
계	100.0%	100.0%	100.0%

가사는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관심사로 년대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60년대 36.5%라는 높은 비율은 재래주택과 달리 아파트가 갖가지 시설을 갖추어 효율적인 가사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서는 가사 다음으로 높은 관심사로 시대가 지날수록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80년대에 31.2%의 비율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였다. 위생은 60년대 가사 다음 순위이나 30.3%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는 60년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위생적이라 평가받던 재래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더욱 관심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파트생활에서 안전 문제는 시대가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여, 80년대는 정서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아파트의 구조와 시설부재 및 미비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육아·교육의 주제는 미미하지만 시대가 지남에 따라 조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모든 시대에서 다섯 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표 3> 년대별 담론 주제의 주요 순위

순위 \ 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	가사	가사	정서
2	위생	정서	안전
3	안전	위생	가사

생활기사에 나타난 주제별 표현단위를 년대별 주요순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이 60년대는 가사-위생-안전

4) 조선일보, ‘아파트진단. 입주금 비싼게 흠. 공동생활의 경험없어 불편’, 1962년 11월 18일자; 동아일보, ‘아파트 생활 좋은 점, 나쁜 점 입주자들의 경험담’, 1963년 3월 28일자; 동아일보, ‘아파트 생활의 주·식 현대와 동거하는 재래식’, 1965년 4월 9일자

5) 경향신문, ‘자료수집 2년...독특한 일화들만 모아 「아파트의 어린이·노인들 측은...마치 닭장같아」’, 1978년 1월 30일자; 중앙일보, ‘고속도변 「아파트」 소음공해 대책 세우라.’, 1979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아파트 설계부터 잘못. 안영배교수 서울시내 45곳 연구분’, 1979년 11월 19일자; 중앙일보, ‘불안한 「아파트」’, 1979년 7월 19일자

6) 여성중앙, ‘아파트는 과연 살만한가?’, 1970년 11월호; 주부생활, ‘아파트 좁은 공간 활용하는 나의 아이디어’, 1975년 2월호

7) 여성중앙, ‘역적 여풍시대: 아파트 운영의 부조리를 쫓아낸 삼익부녀회’, 1972년 6월호

의 순서이며, 70년대는 가사-정서-위생, 80년대는 정서-안전-가사의 순서가 된다. 주거담론의 상세한 고찰은 3장에서 서술하겠지만, 주제별 표현단위의 시대별 변천에 대한 주거담론의 윤곽은 거칠게나마 위의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가사와 위생을 다루는 기사내용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정서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였다. 이는 아파트의 합리적이고 집중적인 평면계획과 현대적 설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보편화되어 가사관련 담론이 기사로써 다루어지는 빈도가 줄어들고, 대신에 아파트주거환경의 정서적 측면이 많이 다루어짐을 의미한다. 아파트 도입초기에는 생활을 직접적으로 편리하게 만드는 물리적 환경에 관심이 모아지다가 이후 아파트가 보급이 일반화되면서는 보다 정신적·심리적인 환경 측면으로 담론의 초점이 이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아파트생활기사의 주제별 분석

3장에서는 아파트생활기사에서 드러나는 일상생활의 담론적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앞서 관찰한 5개의 주제에 해당하는 세부항목별로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의 개수를 집계하고 이를 빈도순위로 정리하였다. 세부항목은 기사문장에서 주어로 등장하는 생활요소로서 ‘난방’, ‘수도’, ‘프라이버시’, ‘열쇠’ 등의 일상적 용어이다. 이 세부항목들을 년대별로 분류하여 주거담론의 시대적 변화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기사원문을 참조하며 담론의 실제적인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3.1. 가사 관련 표현단위의 담론적 분석

(1) 가사 관련 세부항목의 년대별 고찰

1960년대에서 80년대 표현단위 주제 중 가사의 세부내용을 년대별, 순위별로 보면, <표 4>와 같이 난방이 시대의 변화와 관련 없이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의 빈도순위 1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파트의 난방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난방원료와 함께 다양한 난방방식을 계속적으로 시도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가사의 긍정적 표현에서 관리는 60년대와 70년대, 부엌시설은 80년대 난방의 다음 순위를 나타냈다. 80년대 부엌시설에 대한 긍정 반응은 초기 아파트의 미비했던 부엌시설이 보충된 것에 기인한다. 난방 이외 부정적 표현의 순위를 보이는 세탁, 장독은 장소가 원인으로 거주자들의 재래적 생활습관 유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가사 관련 표현단위의 년대별 세부항목과 순위 (단위: 건)

구분	빈도 순위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사	긍정적 표현	1	난방(11)	난방(21)	난방(13)
		2	관리(8)	관리(15)	부엌시설(4)
		3순위 이하	동선/식모/상가/쓰레기처리/주방/식품가게 등(30)	노동력절감/동선/식모/쓰레기처리/시장인접/상가 등(58)	상가/입식/식모/도시가스 등(15)
가사	부정적 표현	1	난방(8)	난방(30)	난방(11)
		2	세탁(4)	장독(13)	작업대(7)
		3순위 이하	장독/부엌기능(4)	시장/작업대/세탁/수납공간 등(29)	장독/시장/부엌공간협소(13)

(2) 가사 관련 세부항목의 내용과 의미

1) 효율의 증대

196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여성인력의 공장취업으로 식모고용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급여 상승, 그리고 부부중심의 핵가족화로 중산층가정의 주부도 직접 가사를 담당하게 되어 가사부담이 증가하였다. 또한,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여성도 증가하여 효율적인 가사가 가능한 주택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는 아파트 거주자들을 통해 재래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일시에 해소하며 효율적인 가사 작업이 가능한 주거형식으로 부각되며 매체에 소개되었다.⁸⁾

2) 난방의 편리함

거주자들의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아파트의 난방은 주거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가사작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60년대 아파트의 난방은 재래주택처럼 연탄을 사용했지만 재래주택이 각 방마다 외부에 아궁이를 갖고 연탄교체 시기가 제각각인 반면 아파트는 실내의 보일러 방식으로 연탄투입구의 숫자가 감소하였고 연탄교체 횟수가 줄어들었다. 60년대 아파트의 거주자들은 난방작업이 단지 실내에서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아파트의 난방이 편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파트난방은 편리함과 더불어 실내 활동성 증가라는 효율증대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인식되었다.(각주8참조) 70년대 이후 난방원료가 석유나 가스로 대체되고, 아파트의 난방방식이 중앙이나 지역난방 발전되었다. 이로써, 주부들은 연탄을 갈아주어야 하는 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며 더 이상 난방으로 인해 주부들이 외출을 제한당하는 일은 사라지게 된다.⁹⁾

3) 주택관리의 편리함

8) 동아일보, ‘아파트생활 좋은점 나쁜점 입주자들의 경험담’, 1963년 3월 28일자; “아파트생활의 장점은 식모가 필요 없다는 점, 식생활을 비롯하여 살림하기가 매우 편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부엌구조가 우선 시간의 절약과 가져오고 노동력을 절약토록 되어있어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별다른 피로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중략)...부엌에 수도가 있어서 언제든지 온수와 냉수가 나오며 음식을 조리하는데도 편리하다고 한다.”

9) 여성동아, ‘아파트: 단장을 이중창으로’, 1980년 12월호; “내 살림을 시작하고 10년간, 나들이만 갔다 오면 언제나 가물가물 꺼져가는 연탄아궁이를 앞에 하고 나는 얼마나 울상을 지었던가. 그래서 혼란한 방, 연탄을 지필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겨울이 있다는 것처럼 행복할 수가 없다.”

아파트의 집안관리 부분 역시 60년대부터 주요한 장점으로 기사화되며 아파트의 일반화에 영향을 미쳤다. 가사작업공간이 실내와 실외로 분산되어있는 재래주택에 반해 아파트는 실내로 집약되고 내구성이 강한 콘크리트, 알루미늄과 유리로 이루어지며 지붕이나 마당, 잔디 등의 관리 대상이 사라져 집안 관리에 소요되던 주부들의 노동력과 시간을 크게 절약시켰다.¹⁰⁾ 또한, 아파트는 단지 내 관리사무실과 관리자가 있어 다양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아파트 관리의 편리함이 아파트라는 주거 선택의 중요한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아파트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¹⁾

4) 불편사항

물론 아파트가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불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난방의 경우 일부 아파트거주자들은 온돌이 아닌 스팀난방 방식으로 인한 부적응과 연탄보일러의 시공결함이나 가스배출기 부실로 인한 연탄가스 중독과 사망사건 발생, 중앙난방에 따른 개인의 난방 조절 불가 등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세탁과 장독, 작업 및 수납공간, 부엌기능 등은 공간과 관련된 문제로 특히, 면적이 작은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더욱 불만이 발생했다. 가사관련 세부항목을 분석해보면 아파트의 주부들이 난방 다음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장독보관과 세탁으로 나타났다. 재래주택에서는 마당이 있어 불편이 없었으나 아파트에서는 좁은 베란다의 공간적 한계로 인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부정적 문제들은 난방방식 변화, 전자제품, 판매식품, 다용도실 및 베란다의 적극 도입, 공장생산물품으로 대체와 순응을 통해 차츰 해소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2. 정서 관련 표현단위의 담론적 분석

(1) 정서 관련 세부항목의 연대별 고찰

아파트생활기사에서 정서적 측면의 세부내용을 시대별·순위별로 분류한 결과 <표 5>와 같이 긍정적 표현에서는 60년대 독립생활, 70년대와 80년대는 프라이버시가 가장 높은 빈도순위로 나타났다. 부정적 표현에서는 모든 시대에서 소음이 가장 높은 빈도순위를 보였다. 이는 시공부실이나 방음시설 미비, 입주민들의 부주의, 아파트

단지 주변의 개발로 인해 다양해지는 소음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생각될 수 있다. 독립생활과 프라이버시, 소음을 비롯한 마당, 이웃균질과 교류, 고립, 단조 등은 아파트의 건축 및 단지 계획과 환경적 특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정서 관련 표현단위의 연대별 세부항목 (단위: 건)

구분	빈도 순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서	긍정적 표현	1	독립생활(3)	프라이버시(9)	프라이버시(3)
		2	프라이버시(2)	이웃균질(7)	전망(2)
		3순위 이하	실 분리배치/가사 퍼로(2)	이웃교류/독립생활/전망/집소유/시집살이/공기 등(17)	이웃교류(1)
부정적 표현	1	소음(5)	소음(35)	소음(30)	
	2	마당(4)	마당(9)	확일(20)	
	3순위 이하	공동생활/이웃경쟁/이웃교류/독지/담당(5)	이웃교류/확일/공동생활/고립/단조/자연/프라이버시 등(56)	이웃교류/마당/담당/단조/공동체의식/정서메마름 등(35)	

(2) 정서 관련 세부항목의 내용과 의미

1) 독립생활과 정서의 만족

아파트생활에서 가장 큰 만족으로 나타나는 독립생활과 프라이버시는 동일한 내용이다. 아파트 주거공간은 독립세대로 계획되어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생활이 가능하여 거주자들은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이 보장되었다. 또한, 아파트는 재래주택과 달리 기밀한 자재와 방과 방의 분리 배치로 가족 간의 사생활도 보호되었다.¹²⁾ 각주13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아파트의 프라이버시 보장은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하나의 큰 장점이자 자랑거리였으며, 60~80년대 아파트 거주 선택에 있어 항상 매력적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이웃과의 왕래가 잦은 경우나 가정부간의 친분으로 오히려 외부로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낮은 층수로 계획된 아파트나 고층아파트의 저층거주자들은 프라이버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을 나타냈다.¹³⁾

2) 정서 불만의 심화

아파트생활에 있어 정서의 담론은 다른 주제들과 달리 부정표현이 긍정표현의 비율보다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60년대는 37.5 : 62.6, 70년대 29.1 : 70.9, 80년대 10 : 90으로 아파트의 정서문제는 공간 계획적 한계 등으로 시대가 지날수록 부정적 시각이 높아져 80년대는 부정적 견해가 압도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이 시기 아파트의 보급이 확산된 것은

10) 중앙일보, '활기 띠는 「맨션. 아파트」', 1970년 8월 7일자; "「맨션.아파트」가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가정생활 양식의 간편화를 꾀하려는 시민의 욕구에 있다. 이촌동 「맨션.아파트」 입주 희망자들을 보면 커다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관리가 불편하고 냉·난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맨션.아파트」에 입주키로 한 사람이 적지 않다."

11) 경향신문, '건설부 6대 조사', 1978년 1월 10일자에서는 건설부 조사결과 아파트 입주자들의 거주가 대부분 집안관리가 편리(39%)해서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여성동아, '르뭌 : 아파트생활 어떻습니까?', 1979년 7월호에서는 서울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상 412가구 설문 결과 「주거가 편리하고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83.5%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다.

12) 경향신문, '주택난에 살림습성 서구화하며 커지는 인기불이는 아파트 생활', 1969년 4월 19일자; "일반시민들이 염려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들 아파트 측은 바로 옆방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한 성"이라고 뽐낸다."

13) 동아일보, '아파트 설계부터 잘못', 1979년 11월 19일자; "각동간의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채광 뿐 아니라 사생활침해까지 일어난다. 위치에서 맞은편 아랫집을 내려다보면 부부가 싸우고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정서적 불만에도 불구하고 재래주택에 비해 아파트가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파트도입 초기, 아파트를 처음 접하는 노년층에게 아파트는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을 안겨주며 받아들여지기 힘든 주거형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매체를 통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노년층도 점차 아파트생활에 적응하고 노인정과 녹지대와 같은 시설이 보완되면서 정서적 안정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파트 생활의 편리를 찾아 스스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모습이나 아파트의 거주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한 조사에서 ‘아파트가 좋다’고 응답한 노인이 증가한 것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¹⁴⁾ 아이들이 받는 정서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주부와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60년대 초반에는 일부 주부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점차 시멘트로 둘러싸인 획일화된 내부공간과 녹지대, 어린이놀이터 미비 및 부재 등으로 아이들의 정서가 매마르게 된다는 부정적인 판단의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3) 소음문제

아파트생활에서 입주자들의 정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줄곧 소음문제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아파트의 건축 계획적 특징인 주호의 적층과 집합, 고밀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웃한 가구에서 발생하는 말소리, 피아노소리, 사람들이 걷고 뛰는 소리와 외부 차량소리 등이 그대로 전달되었으며, 동굴과 같은 계단실과 복도, 지하실 공간과 서로 대칭한 각동 벽에서 소리로림현상이 발생하여 소음이 증폭되기도 하였다.¹⁵⁾ 오늘날까지도 층간소음으로 불리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한 소음문제는 60~80년대를 통해 거주자들의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였으나, 아파트 거주 희망자들이 늘어가는 일반적인 현상과 관련논문¹⁶⁾을 통해 보면 사람들의 아파트라는 주거선택에 소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정서의 양가적 측면

정서에 있어 이웃관계는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논의되는 양가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단독주택에 비해 이웃의 소득·연령·생활수준이 비슷한 이웃들과의 교류를 통해 즐거움을 얻으며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

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아파트 거주자들의 경우 외로움, 소외감, 고독, 고립감을 겪으며 부정적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며 80년대 들어서면서는 이웃과의 단절 현상이 심각한 것을 기사를 통해 볼 수 있었다.¹⁷⁾

3.3. 위생 관련 표현단위의 담론적 분석

(1) 위생 관련 세부항목의 년대별 고찰

아파트생활의 위생 관련 세부항목을 <표 6>과 같이 정리한 결과, 수도와 수세식화장실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긍정적 표현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대상이었다. 부정적 표현에서 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년대는 환기, 70년대 공동화장실, 80년대 공해가 아파트 주거담론에서 불만족스러운 항목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위생의 세부내용은 주로 시설이나 설비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재래주택에서 극히 부족한 부분이였다. 특히 수도의 경우 재래주택에서는 그 자체가 부족한 것이기도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마당에 위치하여 조리, 세척, 세면, 목욕 등 다양한 생활행태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아파트와 비교하여 훨씬 낙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6> 위생 관련 표현단위의 년대별 세부항목 (단위: 건)

구분	빈도 순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위생	긍정적 표현	1 수도(11)	수도(16)	수도(10)
		2 수세식화장실(7)	수세식화장실(10)	수세식화장실(4)
		3순위 이하 냉온수/쓰레기처리/일조/타일/하수도 등(13)	하수/위생설비/쓰레기수거/환경패적 등(17)	단지청소/온수/주변환경패적/하수(5)
부정적 표현	1 수도(8)	수도(14)	수도(6)	
	2 환기(4)	공동화장실(11)	공해(4)	
	3순위 이하 하수/공동장소불결/공해/더스트슈트/욕실부재 등(11)	일조/쓰레기수거/하수/오물/환기/더스트슈트(48)	쓰레기수거/공동화장실/오물처리/일조/하수/환풍(12)	

(2) 위생 관련 세부항목의 내용과 의미

오늘날에는 너무도 당연시되어 논의조차 될 수 없는 수도시설의 유무가 아파트 도입초기부터 생활기사에서 담론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70년대까지도 상수도보급이 높지 않아 급수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주택이 전체의 절반에 이를 만큼 사정이 좋지 못했으나,¹⁸⁾ 이런 상황에서 60년대 대부분의 아파

14) 조선일보, ‘<경제카테일> 짙고 학력 높을수록 아파트 좋아한다’, 1980년 12월 23일자에서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좋다고 응답한 61세 이상 노인들이 45%라고 밝히고 있다.
 15) 조선일보, ‘아파트진단. 입주금 비싼게 흠. 공동생활의 경험없어 불편’, 1962년 11월 18일자; “첫째가 소음, 밤늦게 술을 마시고 계단을 쿵쿵거리며 부인을 불러대는 일이며, 밤늦게 라디오 틀어놓고 히히터거리는 일들이 자주일어나 소음 「노이로제」에 걸리기 일수라는 것이다.”
 16) 이경희 외, 주거환경인자에 관한 심리학자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3권 제1호, 1979, p.10에서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소음에 대한 불만이 크게 지적되고 있지만 실제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좌우하는 요소들 중 소음은 영향도가 낮다고 밝히고 있다.

17) 여성동아, ‘르뽀 : 아파트 생활 어떻습니까?’, 1979년 7월호 : 이웃과 「인사는 하고 지내지만 그리 친하지는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31.9%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한 음식(예. 돌떡)을 나누어 먹는 이웃이 있다」가 29%, 「이웃의 얼굴은 알지만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모른다」라는 응답이 17.7%, 「가족끼리 함께 모이는 이웃이 있다」가 12.9%, 「그저 친하다」가 12%, 「교제도 없거니와 얼굴도 모른다」가 9.9%의 순서로 나타났다.
 18) 동아일보, ‘인구 41% 도시에 집중 70년 센서스에 비친 인구동태와 살림명세’, 1973년 6월 11일자 : 1970년 센서스를 바탕으로 상수도 시설이 갖춰진 주택은 전체의 19%인 85,500채 밖에 안 된다. 급수 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주택이 전체의 48%인 273,000채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부에서 상수도시설을 갖춘 주택은 760,000

트들은 세대별로 수도설비가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사에서 이 ‘수도’는 수도꼭지와 급수관을 단독으로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 목욕탕이나 화장실에 포함된 수도설비를 지칭하였다. 샤워나 목욕에 대한 위생적 요구는 점증하였으나 재래주택에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아파트입주자들에게 ‘수도’로 각인된 위생시설은 아파트와 재래주택을 선명하게 구분 지은 요소였다.¹⁹⁾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파트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이루어져 비위생적 환경조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으며 세면대와 욕조, 샤워시설도 구비하고 사시사철 제공되는 온수로 씻기의 편리를 제공하여 개인위생도 강화시켰다. 1978년의 기사에서 한 입주자가 “절차가 복잡했던 목욕이 쉽게 해결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잘 웃었다는 행복감에 잠긴다.”²⁰⁾라고 언급한 글을 통해 목욕이 가능했던 아파트 화장실은 입주자들의 개인위생문제 해결의 만족과 삶의 질 향상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아파트 화장실의 위생시설과 기기들은 재래주택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만족과 함께 불만 역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술 및 시설부족과 상수도 급수체계가 미비하여 수압이 낮거나 겨울철 동파로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²¹⁾ 수세식화장실은 수도 다음으로 위생주체의 긍정적인 항목이었다. 시민아파트와 같은 일부 저소득층 아파트는 세대 외부에 공동화장실로 계획되어 이용의 불편과 함께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물 공급까지 원활하지 못해 불결한 환경을 초래했다.

3.4. 안전 관련 표현단위의 담론적 분석

(1) 안전 관련 세부항목의 연대별 고찰

안전 관련 세부항목을 정리한 결과, <표 7>과 같이 긍정적 표현에서 60년대 범죄와 외출, 70년대 범죄, 80년대 외출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60~70년대 긍정적 표현에 등장하는 ‘열쇠’라는 용어는 앞서 고찰한 ‘수도’와 유사한 경우이다. 열쇠로 아파트 현관출입문을 열고 잠그기 때문에 범죄 걱정 없이 자유로운 외출을 가능

체, 군부에선 95,000채다. 전기시설이 된 주택은 전체의 49%인 2,407,000채 가구별로는 총 5,793,000채 가운데 59%로 나타났다.

19) 경향신문, ‘아파트 쌍곡선(6) 수세식’, 1976년 9월 2일자; “처음 아파트에 입주한 A씨네 가족은 무엇보다도 목욕탕과 수세식 변소에 만족했다. 목욕탕에서는 언제나 뜨거운 물이 팔팔 쏟아져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목욕을 할 수 있다.”

20) 여성중앙, ‘아파트 이사가’, 1978년 12월호

21) 경향신문, ‘시민아파트 종합진단’, 1970년 3월 7일자; “거의 높은 곳에 지어는 아파트의 수도사정도 어려운 일의 하나. 대부분 높은 곳에 물탱크를 따로 마련하여 아파트의 수도시설이 갖춰지기는 했지만 개인수도도 63%뿐이며 나머지는 공동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일로 수도공사를 지적한 가구가 17%에 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게 해주는 담론의 대상이었다. 이와 더불어 화재와 소방시설, 자연재해에 대한 아파트 거주자들의 만족은 재래주택과의 비교를 통해 언설 가능했던 담론적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안전의 부정적 표현의 주요대상은 60년대 가스에서 70년대 난간, 80년대 범죄로 변화를 나타냈다. 가스의 부정적 표현은 70년대와 80년대 2위를 차지했는데 연탄가스와 함께 LP가스와 도시가스 사용으로 인한 빈번한 가스누출과 폭발문제발생에 기인한다. 60년대와 70년대 긍정적 표현의 1순위를 나타냈던 범죄가 80년대는 부정적 표현의 1순위로 변화한 것은 60~70년대 아파트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였음에 반해 80년대 들어서는 범죄에 안전하지 못한 주거공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7> 안전 관련 표현단위의 연대별 세부항목 (단위: 건)

구분	빈도 순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안전	긍정적 표현	1	범죄(5)/외출(5)	범죄(6)	외출(3)
		2	열쇠(4)	열쇠(5)/외출(5)/자연재해(5)	열쇠/범죄/소방시설(4)
		3순위 이하	화재(2)	화재/경비원/소방시설/이웃(12)	
안전	부정적 표현	1	가스누출(4)	난간에서 추락(20)	범죄(23)
		2	소방도로/진입로/열쇠/외부인접근/고지대위치(6)	가스누출,폭발(10)	가스누출,폭발(10)
		3순위 이하		고지대위치/도로/소방시설 등(50)	난간(추락)/엘리베이터/소방시설/방범 등(27)

(2) 안전 관련 세부항목의 내용과 의미

1) 자유로운 외출

60년대~70년대 아파트생활담론에서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자유로운 외출은 안전측면에서 아파트의 첫 번째 장점이었다. 재래주택은 외기에 면한 여러 벽면의 다수의 창과 문, 낮은 담장, 허술한 잠금장치로 인해 도난에 취약하여 항상 사람이 상주해야해 자유로운 외출이 불가능했다. 반면, 아파트는 세대 내 출입이 철제 현관문 한 곳으로 이루어지며, 열쇠하나로 외부인의 내부 출입이 완전 차단되었다. 또한, 아파트단지나 각 동의 입구에 경비실이 설치되고 경비원이 배치된 경우는 출입인이 더욱 통제되었으며, 발코니 공간을 통해 외부 관찰이 가능하였다. 아파트는 경비원, 현관문의 열쇠, 발코니 공간이라는 계획적 특징으로 단계적 통제 과정을 거쳐 출입되어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강화된 주거형식이었다.²²⁾ 이런 아파트의 보안시설이 가져온 안전함은 가족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의 장점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유로운 외출이라는 사회적 활동과 연결되며 그 담론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2) 안전에서 불안으로의 변화

22) 여원, ‘그러나 나는 아파트에 산다.’, 1969년 2월호; “주로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의 시민생활에 있어서, 부부가 함께 밖에 나가야 겨우 생활이 유지되는 현대의 경제적 구조 하에서 많은 고용인을 대리고 산다는 것은 아무리 인건비가 싼 우리나라에서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반드시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할 주택에 비해 열쇠 하나로 현관문만 잠그면 언제든 가볍게 외출할 수 있는 아파트가 도시민들의 생활에는 얼마나 기능적인가.”

아파트생활에 있어 안전에 대해 60년대는 긍정적 담론이 우세하지만 80년대는 부정적 판단이 긍정보다 훨씬 높은 빈도를 보였다. 60년대는 재래주택의 불안사항이 해소되는 것만으로 높은 만족이 나타났지만, 70년대부터는 아파트 계획적 특성, 시공이나 시설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문제가 급증하면서 부정적인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났다. 60년대 아파트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였음에 반해 80년대 들어서는 범죄에 안전하지 못한 주거공간이 되어 부정적 표현의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는 82년 통금 철폐와 함께 사회 전반적인 범죄의 증가 현상과 맞물려 발생했는데,²³⁾ 아파트의 경우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여 범죄의 주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의 범죄문제는 경비원이 정문에만 배치되거나 가스 배관시설의 벽면설치, 외부인 통제 및 차단시설의 부재, 폐쇄된 엘리베이터에 원인한 것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²⁴⁾ 위와 같은 아파트의 범죄문제는 차후 다중화된 잠금장치, 배관시설의 내부화, 통제 및 차단시설 강화, 엘리베이터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창, CCTV와 같은 감시시설을 통해 점차 해소되었다.

3.5. 육아·교육 관련 표현단위의 담론적 분석

(1) 육아·교육 관련 세부항목의 연대별 고찰

육아·교육과 관련하여 60년대 긍정의 담론적 세부내용은 <표 8>과 같이 집안공부환경이나 어린이놀이터, 친구교제 등이 언급되었다. 70년대는 어린이놀이터가 긍정적 표현의 1순위였으며, 80년대는 긍정적 표현으로 학군만이 나타났다. 부정적 내용으로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어린이놀이터가 계속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육아·양육의 주제가 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논의된 것은 당시 어린이시설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 정서와 관련된 걱정은 60년대부터 언급되기 시작하여 점차 빈도가 높아지다가 80년대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되었다.

<표 8> 육아·교육 관련 표현단위의 연대별 세부항목 (단위: 건)

구분	빈도 순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육아·교육	긍정적 표현	1	집안공부환경/성격명량/어린이놀이터/유괴/친구교제/이웃	어린이놀이터(5) 학교(4)	학군(1)
		2	유괴/친구교제/이웃	어린이놀이터(5) 학교(4)	
		3순위 이하	육아도움/사교성/물건 아끼는 마음(9)	어린이공원/친구교제(2)	
부정적 표현	1	어린이놀이터경쟁심/녹지/정서(3)	어린이놀이터(33) 마당(3)	어린이놀이터(12) 정서(5)	
		2	어린이놀이터경쟁심/녹지/정서(3)	마당(3)	정서(5)
		3순위 이하	어린이놀이터경쟁심/녹지/정서(3)	질병/정서/학교 등(10)	학교/자연/안전보행 시설/유치원 등(12)

23) 경향신문, '통금 철폐이후 교통사고 줄고 범죄 급증', 1982년 3월 6일자
 24) 동아일보, '아파트 승강기 강도', 1983년 12월 3일자; "2일 밤 8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27동 엘리베이터 안에서...김 군 등은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고 있다 윤 양이 혼자 타자 뒤따라 탄 뒤 "돈을 내 놓으라"고 위협, 윤 양이 반항하자 가방 속에 준비해간 벽돌을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2) 육아·교육 관련 세부항목의 내용과 의미

1) 어린이놀이터의 다의성

60년대의 경우 자녀의 육아와 교육을 담당하는 주부들에 의해 어린이의 일상생활과 교육 환경에서의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었다. 60년대 긍정의 세부항목은 집안공부환경이나 어린이놀이터, 친구교제 등 다양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이는 당시 재래주택이나 어린이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 아파트는 실내외가 청결하고, 친구교제가 주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과 이루어졌고 이들의 놀이과정이 확인되며 가능하였다.²⁵⁾ 70년대 어린이놀이터는 육아·교육측면에서 가장 주요한 주거담론의 대상이었다.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아동의 놀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안전 확보와 사회성 함양의 측면에서도 이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지 내 놀이터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간의 교류를 보장하는 일종의 사회적 거름망으로서의 인식도 있었다.²⁶⁾ 6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 보이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단지 내에 놀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생긴 불만이 대부분이어서 어린이놀이공간에 대한 담론적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

2) 육아·교육의 관리적 효율과 정서의 문제

아파트의 어린이 양육과 교육적 환경의 문제는 어린이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것 뿐 만아니라 주부들의 자녀 관리효율과 연관되어 언술되었다. 아파트의 내부구조도 자녀의 교육환경과 건강 측면에서 좋은 점을 제공한 것으로 이야기되었는데, 내력벽에 의한 소음차단과 균질한 실내온도 등이 그러한 예이다.²⁷⁾ 앞서 살펴본 어린이놀이터와 동일하게 아파트주거공간의 이런 속성들은 학습이라는 교육적 효율의 문제와 결합하며 아파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80년대에는 육아·교육에서 정서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3.2절의 정서논의와 마

25) 정병락, 아파트거주자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1980, p.141에서 아파트거주자들의 자녀들이 평소 노는 친구들은 같은 아파트 층수에 사는 친구가 35.3%, 같은 단지내 사는 친구가 42.0%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26) 여상, '아파트생활의 그늘과 양지', 1965년 3월호; "아파트 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 참 편리합니다. 우선 거리에 나가 놀지 않아 위험하지 않아 좋고, 더구나 어린이 유괴가 가능하지 않아 안심하고 아이들을 나가 놀게 합니다. 더구나 아파트에 거주한 어린이들과 친구가 되어 놀기 때문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어머니 되는 분들이 그들 어린이 노는 것을 가깝게 지켜보아 줄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그 외에도 남의 물건을(아파트내의 물건) 아낄 줄 아는 마음씨를 키워주고 적당히 사교성도 성숙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요, 나쁜 점도 있어요....누구 집에는 텔레비전, 전축이 있다 정열..."

27) 동아일보, '아파트생활 좋은점 나쁜점', 1963년 3월 28일자; "우선 아이들의 방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 방과 방 사이의 벽이 딱 두 겹기 때문에 바로 옆방이라도 말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아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딱 좋고, 다음에는 한겨울동안 항상 같은 온도 23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겨울에 감기를 염려가 없다."

찬가지로 교육적 통제와 효율에 적합하다는 도입초기의 인식이 변화된 것으로 고립되고 획일적인 아파트주거환경에 대한 반작용적 담론으로 볼 수 있다.

4. 아파트주거담론의 특성

4.1. 아파트주거담론의 기원

196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주거형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재래주택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합리성, 위생, 안전상의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며 줄곧 개선이 논의되었다. 특히, 재래주택의 부엌은 작업대와 급배수시설의 부재, 난방열원과 조리열원의 혼용, 실간 단차 등으로 가사노동의 낭비가 발생하는 비효율적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나아가 재래주택에서 가사노동의 비합리성은 여성교육과 여성노동력의 사회적 활용에 있어 큰 걸림돌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또한, 도시적 차원에서 밀집된 재래주택은 채광과 통풍에 불리하였고, 화재나 범죄 등 안전 측면에서도 취약하였으며, 가족 구성원간이나 외부로부터 사생활 보장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었다.²⁸⁾ 육아와 아동교육 측면에서도 재래주택은 비위생적인 실내 환경으로 인한 질병과 놀이터가 아닌 차도나 골목에서 놀다 당하는 사고와 부상 등이 자주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일종의 상식이었다.²⁹⁾

가사, 위생, 정서, 안전, 육아·교육 등 다섯 가지 주제들은 아파트생활기사에서 주거담론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담론적 주제들을 아파트가 도입되기 시작한 60년대까지 전개되었던 재래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연결시켜 고찰하면 거의 대부분이 재래주택의 문제점으로 인식되던 내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재래주택 가사작업의 비합리성은 아파트의 가사효율로, 재래주택의 비위생적 환경은 아파트의 위생적 설비로 곧바로 연결되는데, 이는 기타 정서, 안전, 육아·교육의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60~80년대 아파트주거담론의 상당부분이 그 이전 재래주택의 부정적인 주거담론에 기원하며, 이는 아파트의 주거담론이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형식에 대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고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재래주택의 담론을 토대로 형성되고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³⁰⁾ 최근의 아파

트생활담론을 다룬 연구를 보면 조경, 부대시설, 조망 등이 담론의 주제로 자리하여 이와 비교하면, 당시 신문과 여성지에 나타난 아파트의 이해가 그 이전 재래주택에서 불편했던 경험을 반영해서 작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 아파트주거담론 대상의 일상성

신문과 여성지의 아파트생활 기사의 담론적 기원을 고찰한 결과, 아파트의 확산은 당시 재래주택이 만족시켜 주지 못하던 주거요구에 충족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파트생활 기사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만족은 건축가가 중시하는 계획이나 조형에 의한 것보다 설비와 특정시설의 존재를 통해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다섯 가지 주제들이 생활기사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에서 잘 드러나는데, 가사에서는 난방, 위생에서는 수도와 수세식화장실, 안전에서는 열쇠, 육아·교육에서는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식으로 담론의 대상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상적이다. 이들은 아파트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아파트라는 주거형식에서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며, 재래주택을 개선하면 설치가 가능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표준화와 대량생산이라는 아파트의 근대적 생산체계가 야기하는 획일화와 단조로움의 문제가 80년대부터 심각하게 언술되기까지, 아파트의 주거담론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단편적이고 직접적인 편리함의 대상을 통해 생산되고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구에서는 상하수도나 수세식, 샤워시설등과 같은 설비나 기기가 주택유형과 상관없이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형식이 도입되면서 수세식, 온수, 세면대, 샤워시설 등이 함께 제공되어 사람들은 수세식이나 샤워시설이 아파트에만 구비될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가 아님에도 중앙집중식난방과 같은 아파트만의 특징과 동일시하는 담론의 혼란을 보였다.

4.3. 아파트주거담론의 확장성

아파트생활 기사를 분석해보면 아파트의 어떤 속성에 대한 판단이 그 주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확장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가사의 효율을 말하는 언술은 노동력경감 뿐만 아니라 여성의 외출과 직장활동으로 연장되며, 난방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바탕으로 한 활동성증가와 학습효율향상으로 연결되는 식이다. 물론, 아파트의 집약적인 평면계획이 단지 가사효율성만을, 아파트의 난방설비가 적정한 실내온도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니며, 평면계획과 설비계획 모두 합리적이고 쾌적한 총체적 삶을 위해 시설된 것이다. 그렇기에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그 장·단점을 파악해

28) 전남일 외 3인, 한국주거의 사회사, 초판, 돌베개, 파주, 2009, pp.116-117; 함한희, 부엌의 문화사, 초판, 살림, 파주, 2006, p.24

29) 경향신문, '어린이를 지키자.', 1963년 5월 7일자에서는 서울에 어린이는 1백만이 넘지만 어린이놀이터는 겨우 스무 군데도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30) Glendinning Miles, Tower block : modern public housing in England,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Yale University Press, 1994, pp.25-26을 통해 보면 영국에서도 아파트 보급 과정 시 지역계획가나 전문가들에 의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교를 통해 아파트의 우수성을 담론화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대한 지식이 매체를 통해 생산되고 확대되어가는 과정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다. 그런데, 이런 담론의 확장이 지향하는 방향을 주목해보면 외출이나 직장과 같은 주부의 외부활동, 실내에서의 다양한 활동, 난방설비를 이용한 빨래건조, 아동의 놀이관리와 학습효율증가, 아동의 효율적 유대관계처럼 효율과 성과위주의 근대적 생산관리체계와 긴밀히 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¹⁾ 또한, 아파트생활기사의 담론주체인 주부들은 아파트가 제공하는 생산·관리적 효율을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사회관계를 맺으며 도시적 일상에 적응하였다. 도외 지역 주부들의 외부활동이 마을이웃과의 친교 정도인 것과 달리 도시 주부들은 직장, 쇼핑, 취미생활 등 그 외부활동의 범위가 넓고 다양해졌다. 이처럼 아파트생활의 효율은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여가를 즐기고 쇼핑을 하는 도시적·현대적인 삶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러한 도시적 삶의 유지를 위해 아파트라는 주거형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1960~80년대 아파트주거담론은 현대도시생활이 요청하는 방향을 따라 아파트 내·외부환경에만 국한되지 않고, 파생적이며 연쇄적인 확장을 전개하였다.

4.4. 아파트주거담론의 양가성

확장성과 더불어 아파트주거담론의 또 다른 특성은 양가성이다. 아파트생활에서 거주자들은 아파트의 집약되고 독립된 공간에서 긍정과 부정의 정서를 동시에 느끼는 양면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아파트의 집약된 실내공간은 가사효율 측면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감소시켜 주부들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냈다. 독립세대로 계획된 아파트의 주거공간은 “시집살이에서 벗어나는 길이 곧 아파트로 통한다.”³²⁾는 기사를 통해 엿볼 수 있듯이 핵가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자연스럽게 부부와 자녀만이 거주하게 됨으로써 여성들에게 심리적 편안함도 제공했다. 또한, 아파트의 독립적인 구조는 현관문만 닫으면 완전한 독채가 되어 타인의 간섭이나 시선을 받지 않는 사생활보장이 뛰어나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시대에 변함없이 아파트거주의 매력적인 요소로 항상 작용했다. 하지만 아파트의 독립구조는 이웃교류 측면에서 폐쇄성으로 소통 단절의 문제를 발생시켜 만족과 동시에 단절과 소외라는 정서적 문제를 야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고민은 줄곧 아파트의 특징으로 이해되어 왔

다.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비춰지기도 했다. 이들은 아파트생활에서 이웃교류 단절로 오는 고립이나 외로움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반상회나 아파트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교류 프로그램 등 여러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생활에서 느끼는 단조로움, 고독 등의 정서문제는 독립구조를 비롯한 건축계획요소가 그대로 유지되어 아파트 내에서 완전한 해결책이 강구되지는 못했다. 아파트거주자들은 아파트단지의 교회와 같은 외부시설을 통해 아파트생활의 단조로움과 권태를 해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주부들의 가사작업과 외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아파트의 가사효율은 정서나 육아·교육의 일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이중성을 나타냈다. 가사효율의 배경이 되는 집약된 공간구조와 독립구조는 이웃단절이나 고립의 문제를 발생시켜 아파트 거주자들의 정서적 불만족의 원인이 되었다. 육아·교육 측면에서도 아파트는 주부들의 자녀 통제를 용이하게 해주었지만 아이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5. 결론

1960~80년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의 보급은 매우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아파트의 이러한 일반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과 같은 거시적 시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본 연구는 아파트라는 서구적 주거형식이 어떻게 일상생활에 뿌리내리게 되었는지를 신문과 여성지의 기사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1960년에서 1989년 사이의 아파트 생활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총 975건의 생활기사를 전문 분석하여 1,055개의 표현단위로 세분한 후, 가사, 정서, 위생, 안전, 육아·교육 등 5개의 주제별로 집계할 수 있었다.

둘째, 1960년대에는 담론의 주제가 가사-위생-안전의 순서였으나 80년대에는 정서-안전-가사로 바뀜으로써, 가사효율과 위생환경의 담론이 시대에 따라 퇴조하고 정서적 가치인 정서의 문제가 일상에서 주요한 이슈로 대두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아파트 주거담론의 기원은 1960년대 이전 재래주택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담론의 주요대상은 재래주택에는 없는 설비와 시설이었고 이들을 아파트와 동일시하는 모습도 보였다.

넷째, 아파트 주거담론은 생활의 경험과 필요에 따라 그 외연을 확장하였는데, 이는 근대적 삶이 지향하는 호

31) 박철수, 아파트의 문화사, 초판, 살림, 과주, 2007, pp.37-38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아파트의 확산이 근대적 생산체계와 밀접함을 볼 수 있는데 저자는 70년대 아파트는 단독주택에 비해 편리, 편안하고 젊은 사람들의 취향과 선호에 잘 맞았는데 이는 곧 아파트가 일상적인 지역활동 및 가족단위의 생활환경에 있어 선택의 풍요로움과 시설이용의 편리성을 담보하고 있었음을 예증하는 것이라 서술하고 있다.

32) 중앙일보, 「새로운 생활모형」의 모색을 위한 특집, 1979년 2월 9일자

을과 도시화에 적합한 것이었다.

다섯째, 재래적 생활방식과 서구적 주거형식, 인본적 가치관과 근대적 효율성이 교차하는 지점인 아파트는 생산효율에 대한 예찬과 정서적 불만에 대한 호소가 공존하는 담론적 양가성을 매체를 통해 보여주었다.

여섯째, 가사, 정서, 위생, 안전, 육아·교육 등 5개의 주제는 그 각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아파트를 둘러싼 다면적인 요소가 현대도시의 삶과 접촉하며 담론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들은 서로 상보적이며 때로는 이중적인 관계를 담론 안에서 형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광경수; 남경숙; 신경주; 이민아; 신경주; 이민아; 이영심; 장삼옥; 최정신; 황연숙, 신개념 주거학, 기문당, 서울, 2011
2. 박철수, 아파트의 문화사, 초판, 살림, 파주, 2007
3. 발레리 즐레조, 아파트 공화국, 초판, 후마니스트, 서울, 2007
4. 손정목,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 2, 초판, 한울, 파주, 2005
5. 홍원화, 인간과 주거문화, 경북대학교출판부, 대구, 2013
6. 진남일·손세관·양세화·홍형욱, 한국 주거의 사회사, 초판, 돌베개, 파주, 2009
7. 대한건축학회, 주거론, 기문당, 서울, 2010
8. 함한희, 부역의 문화사, 초판, 살림, 파주, 2006
9. Glendinning Miles, Tower block : modern public housing in England,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Yale University Pres, 1994
10. 김남길, 하재명, 주거지에서 환경 스트레스의 지각이 거주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적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7권 2호, 1996
11. 대한토지주택공사, 주거와 안전 : 일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 매뉴얼:일본 주택,도시정비공단 자료, 1999
12. 이경희 외, 주거환경인자에 관한 심리학자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3권 제1호, 1979
13. 이지혜, 주거 내 위생공간과 주변공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2
14. 장성수, 1960~1970년대 한국 아파트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4
15. 정병락, 아파트거주자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1980
16. 조희금, 서지원,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정생활 영역의 정책적 요구 :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3권 제1호, 2009
17. 천현숙, 아파트주거문화의 특성에 관한 사회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18. 경향신문, 1960년 01월 01일자~1989년 12월 21일자
19. 동아일보, 1960년 01월 01일자~1989년 12월 21일자
20. 매일경제, 1966년 03월 24일자~1989년 12월 21일자
21. 조선일보, 1960년 01월 01일자~1989년 12월 21일자
22. 주부생활, 1965년 04월호~1989년 12월호
23. 중앙일보, 1965년 09월 22일자~1989년 12월 21일자
24. 여상, 1962년 11월호~1968년 2월호
25. 여성동아, 1967년 10월호~1989년 12월호
26. 여성중앙, 1970년 01월호~1989년 12월호
27. 여원, 1955년 10월호~1989년 12월호
28. 경향신문, '어린이를 지키자.', 1963년 5월 7일자
29. 경향신문, '주택난에 살림습성 서구화하며 커지는 인기몰이는 아파트 생활', 1969년 4월 19일자
30. 경향신문, '시민아파트 종합진단', 1970년 3월 7일자

31. 경향신문, 아파트 쌍곡선(6) 수세식', 1976년 9월 2일자
32. 경향신문, '건설부 6대 조사', 1978년 1월 10일자
33. 경향신문, '자료수집 2년...독특한 일화들만 모아 「아파트의 어린이·노인들 측은...마치 닭장같아」', 1978년 1월 30일자
34. 경향신문, '여적', 1981년 1월 12일자
35. 경향신문, '통금 철폐이후 교통사고 줄고 범죄 급증', 1982년 3월 6일자
36. 중앙일보, '불안한 「아파트」', 1979년 7월 19일자
37. 동아일보, '아파트생활 좋은점 나쁜점 입주자들의 경험담', 1963년 3월 28일자
38. 동아일보, '아파트 생활의 주·식 현대와 동거하는 재래식', 1965년 4월 9일자
39. 동아일보, '인구 41% 도시에 집중 70년 센서스에 비친 인구동태와 살림명세', 1973년 6월 11일자
40. 동아일보, '아파트 설계부터 잘못', 1979년 11월 19일자
41. 동아일보, '아파트 승강기 강도', 1983년 12월 3일자
42. 조선일보, '아파트진단. 입주금 비싼게 흠. 공동생활의 경험없어 불편', 1962년 11월 18일자
43. 조선일보, '<경제각테일> 젊고 학력 높을수록 아파트 좋아한다', 1980년 12월 23일자
44. 중앙일보, '시민아파트 날림공사', 1969년 10월 20일자
45. 중앙일보, '활기 띠는 「맨션. 아파트」', 1970년 8월 7일자
46. 중앙일보, '「새로운 생활모형」의 모색을 위한 특집', 1979년 2월 9일자
47. 중앙일보, '고속도변 「아파트」 소음공해 대책 세우라.', 1979년 7월 11일자
48. 여상, '아파트생활의 그늘과 양지', 1965년 3월호
49. 여성동아, '아파트: 단장을 이중창으로', 1980년 12월호
50. 여성동아, '르뽀 : 아파트생활 어떻습니까?', 1979년 7월호
51. 여성중앙, '아파트 이사기', 1978년 12월호
52. 여성중앙, '역척 여풍지대: 아파트 운영의 부조리를 씻어낸 삼익 부녀회', 1972년 6월호
53. 여원, '그러나 나는 아파트에 산다.', 1969년 2월호
54. 통계청, www.kostat.go.kr

[논문접수 : 2014. 02. 24]

[1차 심사 : 2014. 03. 18]

[게재확정 : 2014. 04. 10]